

## 주요 내용

### 1. [농어촌 교회 실태]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종교적 성향과 실재 인식\_한국 vs 세계 비교

2)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상호 인식 조사



#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최근 비수도권에 사는 인구 절반(49%)이 ‘우리 지역 20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비율은 농어촌의 비중이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농어촌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척박한 지역이다. 고령화, 일자리 감소, 경제 위축, 사회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대책이 쉽지 않다. 이런 농어촌에서 하는 목회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인 3명 중 2명(65%)이 60대 이상 노인이며, 10개 중 7개 교회는 교인이 30명이 채 안 되며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 등의 목회 환경은 목회자를 탈진하게 만들고(84%가 동의) 담임목사직을 그만 둘 생각까지 하게 하지만(66%가 경험)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84%가 동의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음을 기대하게 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소속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이다.

이번 <넘버즈 189호>를 통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자료 출처 : 전국 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 조사. 2023 4. 11.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 2023.3.24.~30.)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54&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54&category=ST))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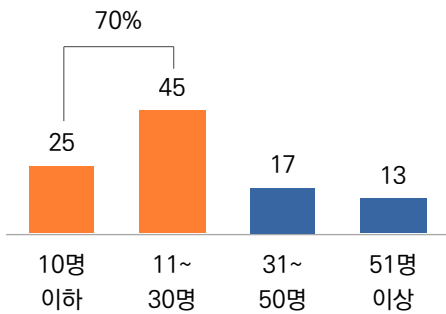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전국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504명 (유효 표본) - 전체 농어촌 교회 1,533개 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회수율은 32.9%였음
• 표본 추출	연회별 교회 구성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함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6\%p$
• 조사 기간	2022년 11월 9일 ~ 12월 16일 (38일간)
•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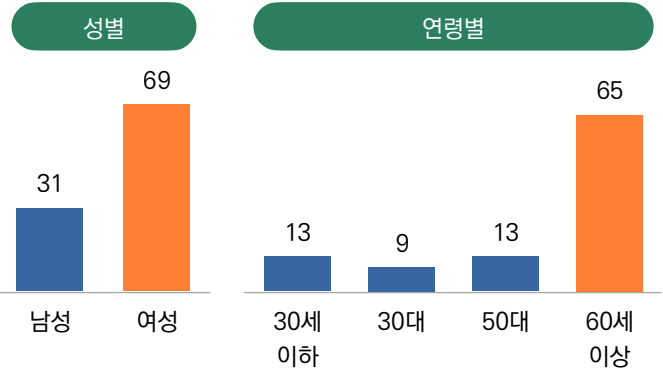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 현황] 농어촌 교회 교인 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노인!

- ▶ 농어촌 교회의 출석 교인 수를 지난 주일 예배 참석한 성인 기준으로 살펴봤다. 11~30명 규모가 45%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하 규모는 25%로, 교인 30명 이하 교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성별로는 여성이 69%로 남성(31%)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5%를 차지했다.

[그림] 농어촌 교회 출석 교인 수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그림] 성·연령별 농어촌 교회 교인 구성비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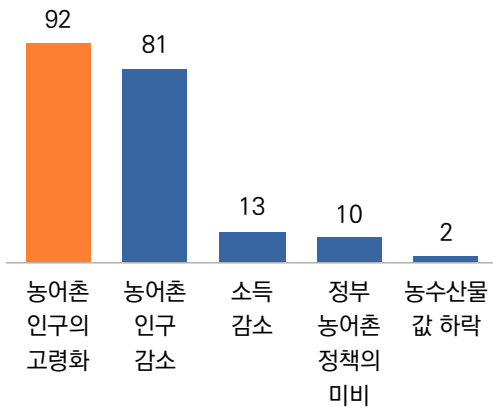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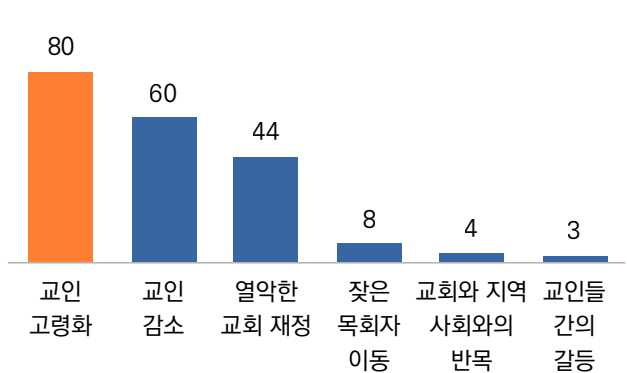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의 현실]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

- ▶ 농어촌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92%)와 ‘농어촌 인구 감소’(81%) 응답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인 고령화’(80%)와 ‘교인 감소’(60%)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 두 문제는 농어촌 현실 문제와 동일했다. 즉 지역 문제가 농어촌 교회와 직결되고 있었다.

[그림] 농어촌 문제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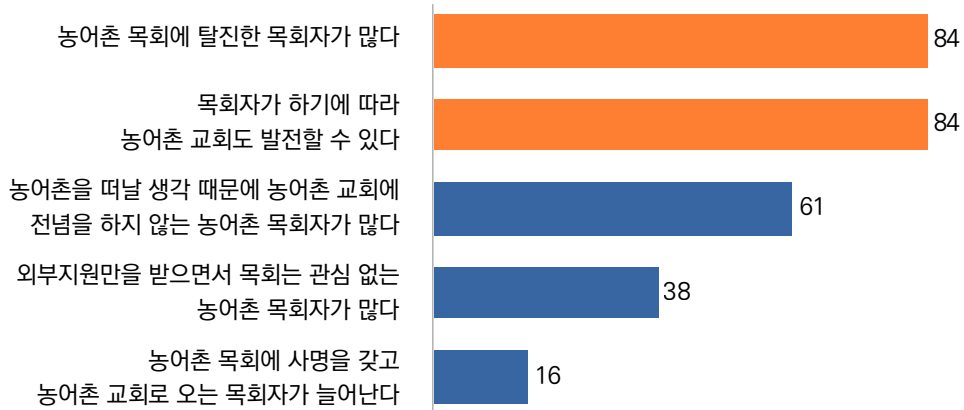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 (1+2순위, %)



## ◎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 ▶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 교회의 현실에 대해 어두운 평가를 하고 있으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84%)에 동의하여 농어촌 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에 84%가 동의해 ‘목회자’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와 부담감이 공존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에 대한 이슈 동의율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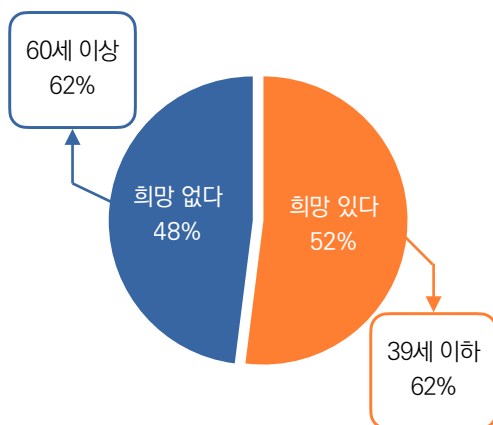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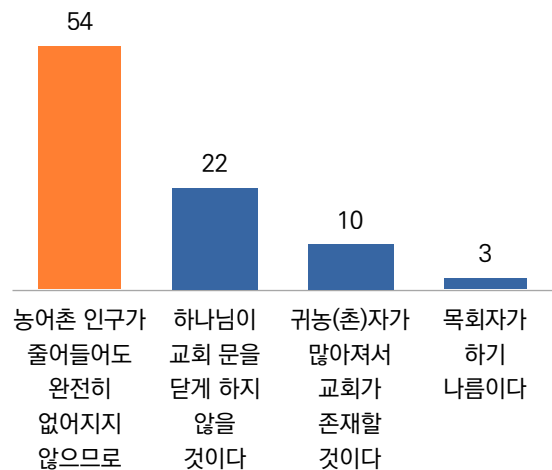
## ◎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52%), “시골 교회에 희망이 있다”!

- ▶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8%가 ‘희망이 없다’고 응답해 미래를 어둡게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희망이 있다’는 비율도 52%나 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39세 이하의 62%는 ‘희망 있다’고 동의한 반면 60세 이상 목회자의 62%는 ‘희망 없다’에 동의했다.
- ▶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로는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농어촌 교회 목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응답이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 여부



[그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 (‘농어촌 교회에 희망 있다’ 동의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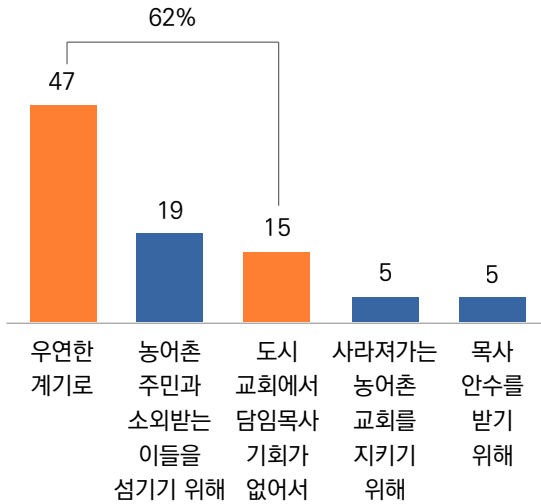
# 03

## [농어촌 교회의 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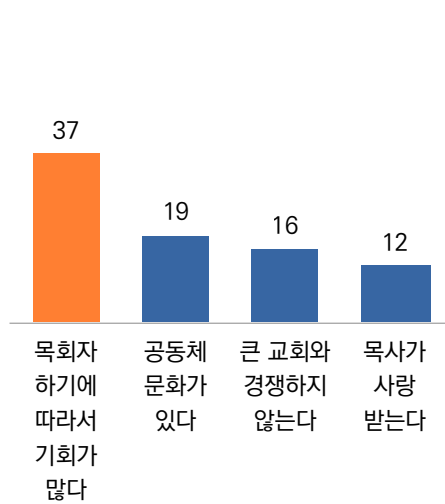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의 장점, “목사 하기에 따라 기회가 많아” 37%!

- ▶ 농어촌 목회를 하게 된 이유로 ‘우연한 계기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도시 교회에서 담임목사 기회가 없어서’(15%)을 포함하면 농촌 목회를 비계획적인 이유로 시작 하게 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 ▶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를 3명 가운데 1명 이상(37%)이 응답했다. 농어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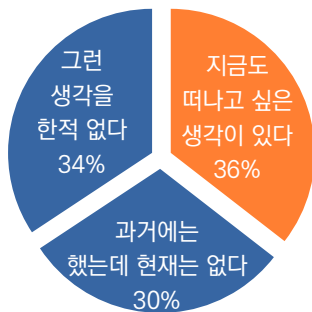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 장점 (상위 4위, %)



### ◎ 농어촌 목회자 36%, “교회 떠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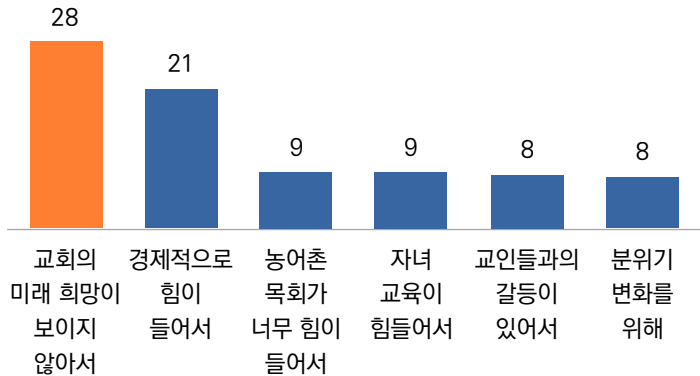
- ▶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재 담임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3명 가운데 1명 남짓 (36%)은 ‘지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현재는 없다’(30%)까지 포함하면 전체 목회자의 66%가 농어촌 교회 목회를 그만 둘 생각을 한 셈이다.
- ▶ 교회를 떠날 생각을 현재 하거나 혹은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8%)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다.

[그림] 현 담임교회 떠날 생각 여부



[그림] 현 담임교회 떠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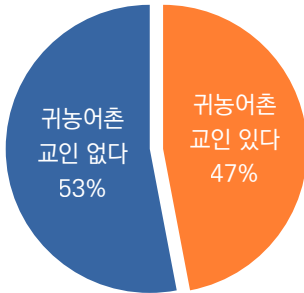
(현 담임교회 떠날 생각 경험 목회자,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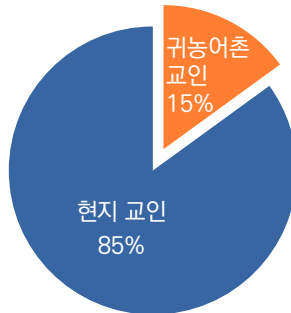
## ◎ 농어촌 교회의 절반, 귀농어촌 교인 있어!

- ▶ 교회에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 정도(47%)가 있다고 응답했다. 귀농어촌 교인이 전체 교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 정도이며, 귀농어촌 교인의 12%정도는 귀농 후 신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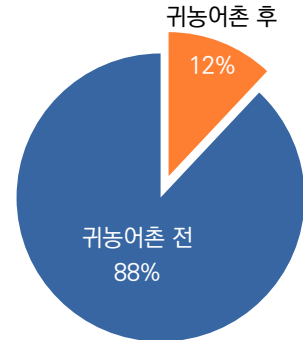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 출석 여부



[그림] 귀농어촌 교인 평균 비율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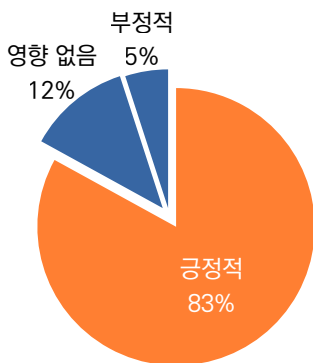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의 신앙 가진 시기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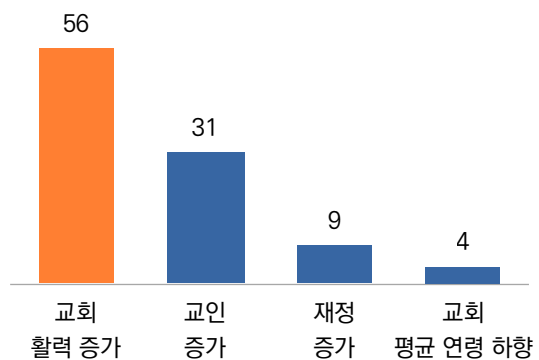
## ◎ 귀농어촌 교인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83%!

- ▶ 귀농어촌한 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적 영향’이 83%로 나타나 농어촌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귀농어촌한 교인들이 미치는 가장 큰 긍정적 영향으로는 ‘교인 증가’(31%)도 있지만 단순 수적인 증가보다는 ‘교회 활력 증가’(56%)가 단연 최고의 영향으로 꼽혔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귀농어촌 교인의 유입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그림] 귀농어촌 교인의 긍정적 영향 (귀농어촌 교인이 긍정적 영향 미치는 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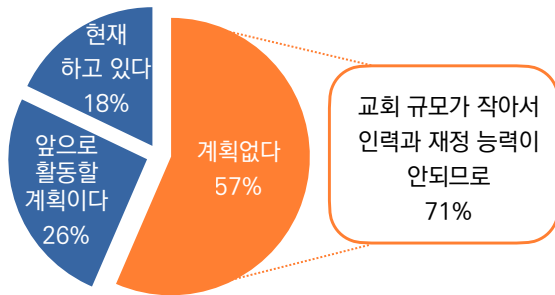
# 04

## [농어촌 교회와 지역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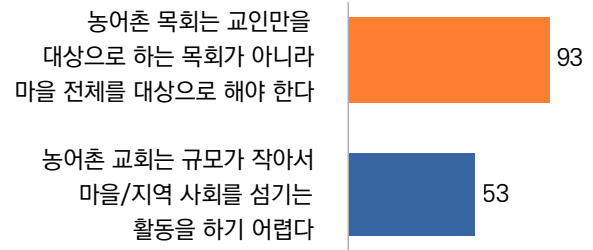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93%!

- ▶ 교회에서 마을목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 ▶ 마을목회에 대해 ‘계획 없다’(57%)고 응답한 목회자의 71%는 ‘교회 규모 작고 인력/재정 능력 미비’를 주 이유로 꼽았다.
- ▶ 농어촌 목회에 대해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93%가 동의해 농어촌 목회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거의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림] 마을목회 하는 비율



[그림] 농어촌 목회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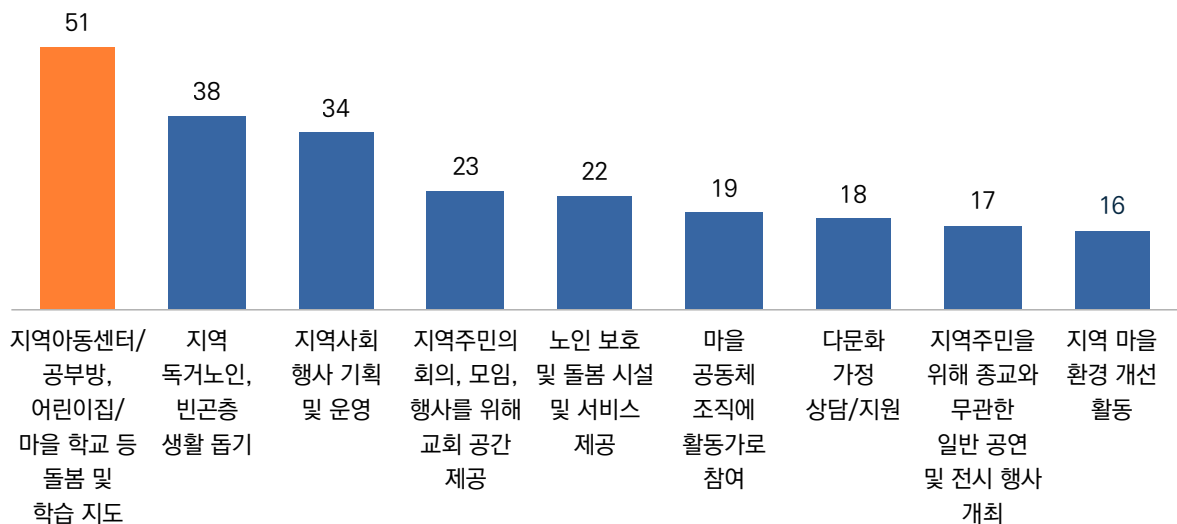


\*4점 척도임

### ◎ 가장 많이 하는 마을목회는 ‘아동을 위한 돌봄 및 학습 지도’!

- ▶ 농어촌 교회가 하는 마을목회 활동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 등 돌봄 및 학습지도’(51%)가 가장 보편적인 마을목회 활동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은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38%)였다. 마을목회가 지역 복지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마을목회 하는 내용 (마을목회 하는 교회, 복수응답, 상위 9위, %)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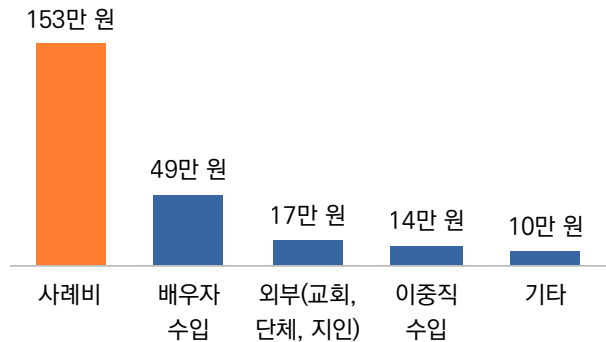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의 재정] 목회 사례비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쳐!

- ▶ 농어촌 목회자의 월 가구 수입은 평균 24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성비를 보면 '교회사례비'가 15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수입'이 49만 원, 외부(교회, 선교단체, 지인)의 보조가 17만 원 순이었다.
- ▶ 조사를 진행한 2022년의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여액 191만 원과 비교하면 '교회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였다.

[그림] 월 가구 수입



[그림] 월 가구 수입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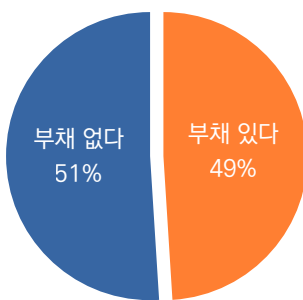


\*해당 수입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504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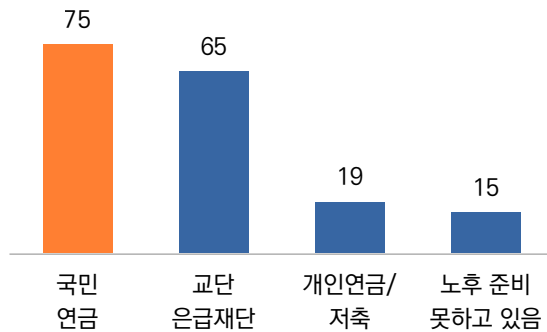
### ◎ 농어촌 목회자 절반(49%)은 부채 있어!

- ▶ 농어촌 목회자 중 개인 부채가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인 49%로 조사되었으며,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75%)이 4명 가운데 3명이 응답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수단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단 은급재단'(65%)도 과반수가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 ▶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15%나 되었다.

[그림] 개인 부채 여부



[그림] 은퇴 후 노후 준비 (복수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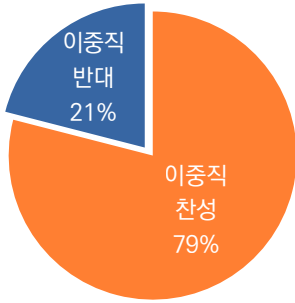
# 06

## [농어촌 교회의 이중직]

###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8명은(79%) '이중직'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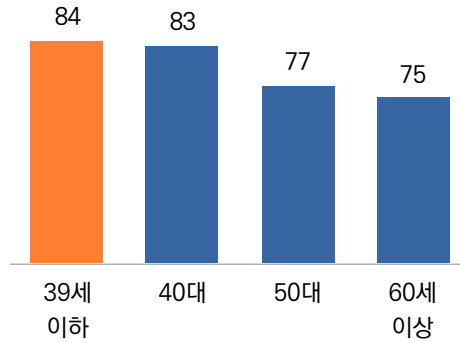
- ▶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5명 중 4명이(79%) 찬성할 정도로 목회자의 이중직은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 ▶ 이중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 (적극+약간 찬성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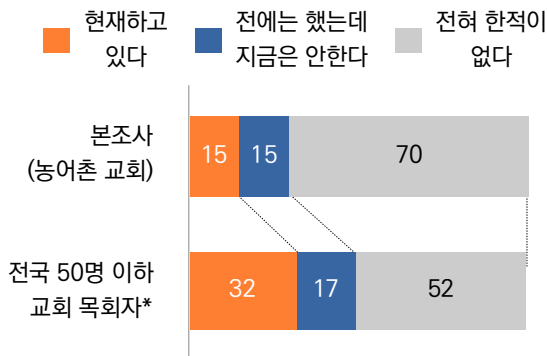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이중직 찬성 비율 (%)



## ◎ 현재 이중직 비율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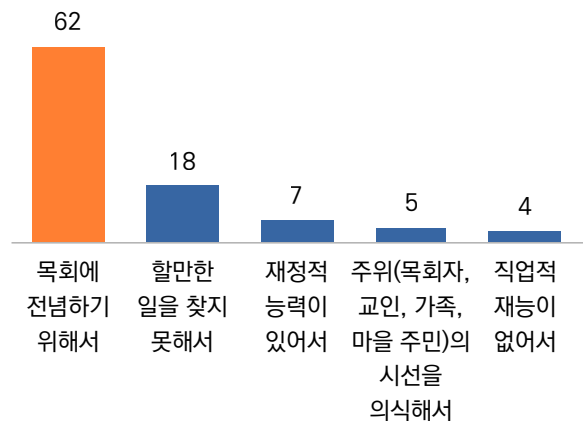
- ▶ 이중직에 대해 '현재 하고 있다'가 15%로 나타났는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도 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 전국의 50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 기준 이중직 여부를 비교해 보면,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이중직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중직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할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18%)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이중직 수행 여부



\*자료 출처 : 예장합동/목회데이터연구소, 이중직 목회자 실태 조사, 2021.06. (전국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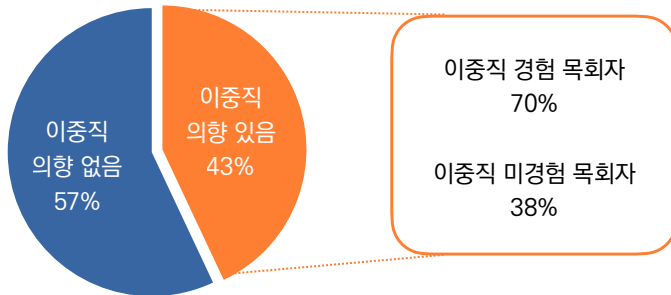
[그림] 이중직을 하지 않은 이유 (이중직을 하지 않는 목회자, %)



## ◎ 현재 이중직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 43%, “앞으로 이중직 할 의향 있다”!

- ▶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에게 앞으로의 이중직 의향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4명(43%) 정도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직 경험자의 의향률(70%)은 이중직 미경험자의 의향률(3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향후 이중직 수행 의향 (이중직을 현재 안 하는 목회자)



1884년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농촌 인구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촌 선교가 곧 한국 선교를 의미했고 농촌의 부흥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의미했다.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촌락으로 이뤄진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마을 전체를 목회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이번 넘버즈의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는 기독교대 한감리회 소속 농어촌 교회 1533개 중 504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응답했는데, 1970년도 이전에 창립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비율이 32%에 달해 농촌 선교로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서 농가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70년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46%)에 해당하는 1442만 명에서 2019년 전체 인구의 4% 정도인 225만 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이중 절반(47%)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목회의 문제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농어촌 목회자들은 '교인 고령화'(80%), '교인 감소'(60%), '열악한 교회 재정'(44%)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농촌 목회자들은 3명 중 1명 이상이 담임목사직 이탈을 고민하고 있었다.

문제점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이러한 농어촌 목회의 반복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농어촌 교회 목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다.

첫째, 농어촌 교회 목회자에 대한 교육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목회를 위해 농어촌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목회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처음 부임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농어촌에서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사역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어촌자 대상 목회 필요성이다. 귀농어촌 인구는 농촌과 도시 교류 차원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를 감안할 때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 목회자의 83%가 귀농어촌 교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롭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잘 화합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목회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마을 목회는 개교회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정 교회가 마을공동체 활동에 홀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다른 교회를 물색하여 협력 사업을 벌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활동을 하는 별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목회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목회자의 사례비와 월 소득은 거의 극빈층에 해당할 정도로 좋지 않다. 실제 평균 사례비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153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교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종직을 보다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농업을 포함한 적합한 직업 훈련도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목회자 최저생활 보장 제도나 기본 소득 제도,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은급 제도 현실화 등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 교회에 대해 희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52%)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희망이 있는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54%)가 가장 높았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22%)이 그다음이었다. 농어촌 목회를 단순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가 아닌 '선교적 차원'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통계청,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2020.11.17

1.[종교적 성향과 실재 인식\_한국 vs 세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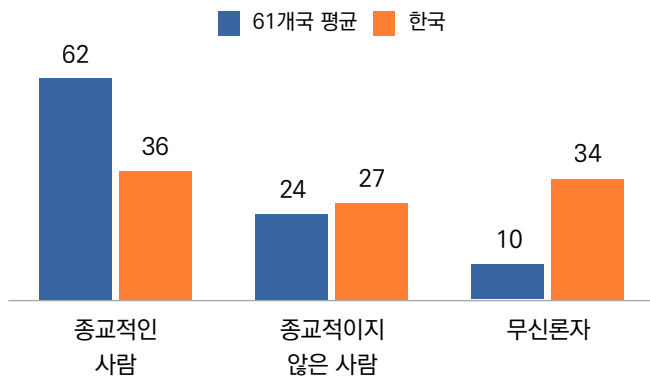
2.[한미동맹 70년 한미 상호 인식 조사]



## 한국인 '나는 무신론자' 비율,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 ▶ 최근 갤럽 인터내셔널의 '종교적 성향과 실재에 대한 세계인 인식' 조사(61개국)에서 '본인의 종교 활동 참여 여부와 별개로 자신이 종교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무신론자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61개국 국민의 62%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응답했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24%, '무신론자' 10%로 나타났다.
- ▶ 한국의 경우 '종교적인 사람'이 36%로 61개국 평균 대비 절반 가까이 낮은 반면 '무신론자'의 비율은 3배 이상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 종교적인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자신의 종교적 성향 (61개국 평균 vs 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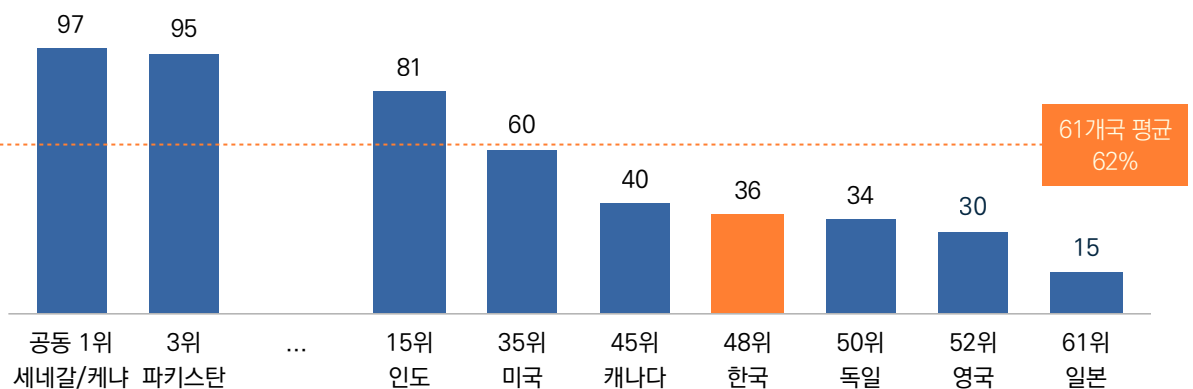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갤럽 인터내셔널/한국갤럽, 세계 조사: 61개국 성인 총 57,768명, 온라인 및 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2.08-2022.10/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35명, 모바일 조사, 2022.08.23.-08.31)

### ◎ '종교적 사람이다' 한국인 응답률 61개국 중 하위권(48위)!

- ▶ 세계 61개국 중 '나는 종교적 사람이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세네갈/케냐'(97%)였고, 한국은 36%로 하위권(48위)에 랭크됐다. 가장 비종교적인 나라는 '일본'(15%)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가별 종교적 성향 (61개국 중 주요국, '종교적인 사람이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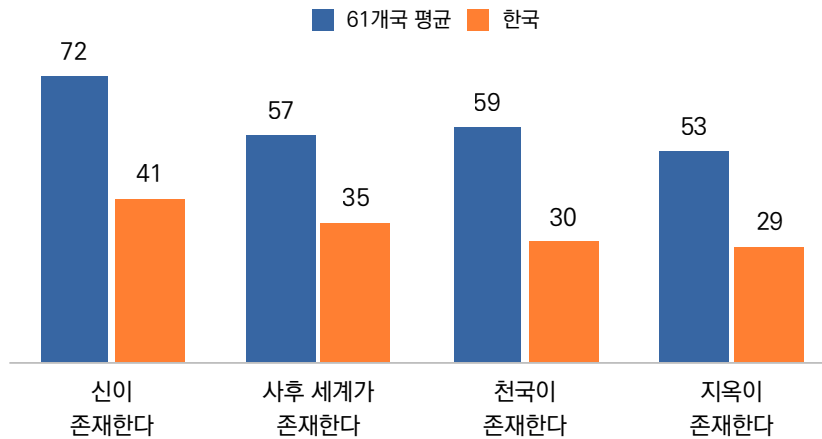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갤럽 인터내셔널/한국갤럽, 세계 조사: 61개국 성인 총 57,768명, 온라인 및 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2.08-2022.10/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35명, 모바일 조사, 2022.08.23.-08.31)

## ◎ ‘신의 존재 믿는다’, 61개국 평균 72% vs 한국 41%로 격차 커!

- ▶ 현재 자신의 종교와 무관하게 신의 존재, 사후 세계의 존재,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를 믿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61개국 평균 72%가 신의 존재를 믿었고, 사후 세계·천국·지옥의 존재를 믿는 비율 모두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면 한국인은 41%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해 세계 평균과는 큰 격차를 보였고, 사후 세계 존재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30~4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믿음을 보여, 한국인의 종교성이 세계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종교적 실재에 대한 인식 (61개국 평균 vs 한국, ‘믿는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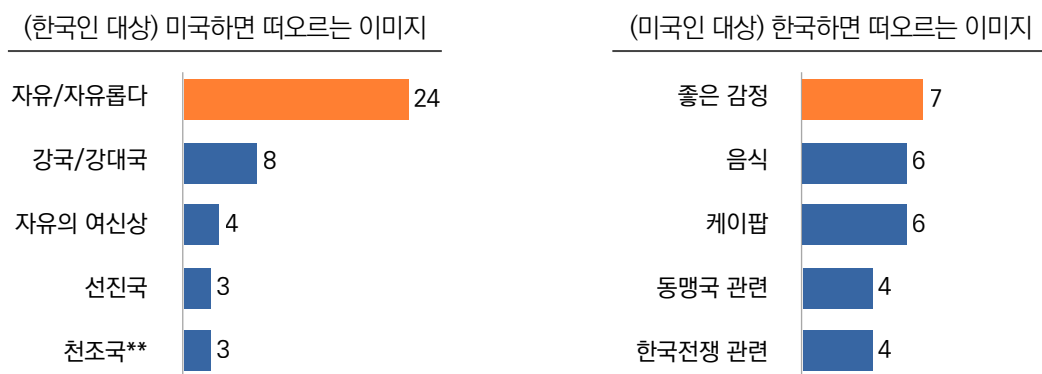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갤럽 인터내셔널/한국갤럽, 세계 조사: 61개국 성인 총 57,768명, 온라인 및 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2.08-2022.10/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35명, 모바일 조사, 2022.08.23.~08.31)



## 상대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미국 '자유' vs 한국 '좋은 감정'

- ▶ 한국 대통령으로 12년 만에 국민 초대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인데,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민의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한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인 1,037명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조사에서 '한국' 혹은 '미국'하면 떠오르는 상대국의 이미지에 대해 서술형으로 물었다.
- ▶ 한국인에게 '미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24%)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강대국'(8%), '자유'의 여신상(4%) 순이었다. 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좋은 감정'이란 응답이 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6%), '케이팝'(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상대국 이미지 인식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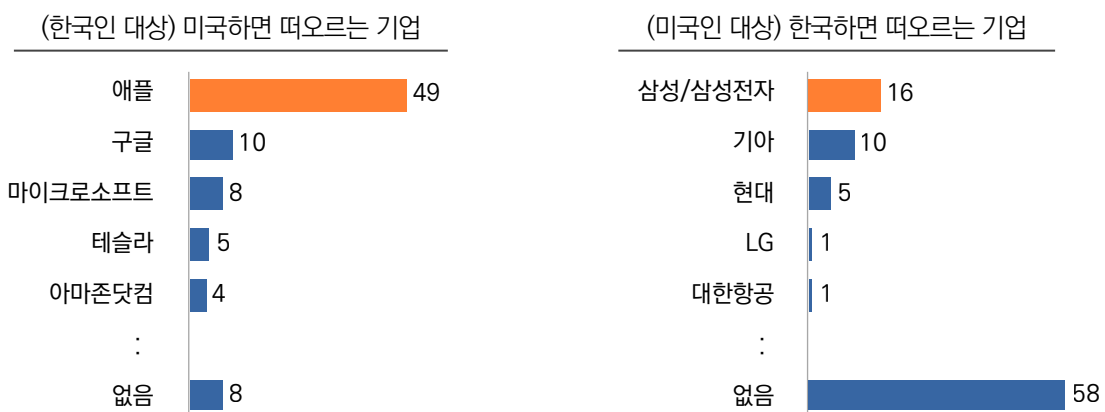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아일보/국가보훈처,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만 19-69세 한미 국민 2,037명(한국 1,037명, 미국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3.17.-03.22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

## ◎ 미국인 10명 중 6명 정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기업 없어

- ▶ '미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한국인 대상)은 '애플'이 4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구글' 10%, '마이크로소프트' 8%, '테슬라' 5% 등으로 나타났다.
- ▶ 반면 미국인은 '한국'하면 떠오르는 기업으로 '삼성/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기아', '현대' 등의 순이었다. 다만, '없음'으로 응답한 미국인 응답자 비율이 58%나 돼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그림] 상대국 기업 이미지 인식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동아일보/국가보훈처,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만 19-69세 한미 국민 2,037명(한국 1,037명, 미국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3.17.-03.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9호 \(2023년 4월 3주\)](#)

-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등

[“與도 野도 싫다” 무당층 31%…대선 이후 최대](#)

동아일보\_2023.04.21.

◎ 사회 일반

[집안 책임진 서울 '가족돌봄청년' 900명…생계·주거비 부담](#)

연합뉴스\_2023.04.19.

[극단선택,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아…“경제적 어려움 비판”](#)

문화일보\_2023.04.21.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동아일보\_2023.04.19.

[12일 법정 첫 ‘도서관의 날’인데…독서량과 독서인구는 계속 줄어](#)

매일경제\_2023.04.11.

[국민 10명 중 6명 “대형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

국민일보\_2023.04.19.

[오늘 월소득 한 달분 vs 1년 후 두 달분 수령, 당신의 선택은?](#)

갤럽리포트(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_2023.04.20.

[2023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04.19.

[이혼 실감하는 순간? 돌싱들에게 물어보니…남녀 대답 달랐다](#)

중앙일보\_2023.04.24.

[韓 군비지출 日도 제쳤다…세계 9위 올라](#)

아시아경제\_2023.04.24.

**[인구 5000만을 지키자, (한국경제)]**

[1."육아휴직 쓰면 괴심죄"..."부모세대보다 애 키우기 힘들다" 75%](#) \_2023.04.16.

[2.저출산위-한경 손잡고 인구 위기 해결 나선다](#) \_2023.04.17.

[3.'소멸위험' 지자체, 절반 넘었다…부산도 16개구 중 7곳 사라질 판](#) \_2023.04.18.

[4."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 저하 중요 원인"](#) \_2023.04.1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 청년 /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 우울 등 심리문제로 학교 중단](#)

연합뉴스\_2023.04.20.

["장애학생 학부모 3명 중 1명, 코로나시기 경제 부담 매우 늘어"](#)

연합뉴스\_2023.04.19.

[경고등 켜진 10대 마약, (국민일보)]

① [너무 가까운 위험한 유혹](#) \_2023.03.14.

② [음식 주문하듯 마약 배달](#) \_2023.03.15.

③ [첫 시작 때가 차단 골든타임](#) \_2023.03.16.

## ◎ 기업 / 경제

[올해 채용시장 트렌드는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증가'](#)

연합뉴스\_2023.04.20.

[일하는 사람 5명 중 한명은 60세 이상... '워킹 시니어' 급증세](#)

중앙일보\_2023.04.17.

[근로자 5명 중 1명 월급 400만원 ↑ ...200만원 미만은 23% '역대 최저'](#)

동아일보\_2023.04.18.

[2023 직장생활 평가 및 F.I.R.E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3.04.21.

## ◎ 건강

[체중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오래 살까](#)

조선일보\_2023.04.19.

['백신 불신' 세계 1위는 한국...코로나19 거치며 신뢰 추락](#)

연합뉴스\_2023.04.20.

## ◎ 국제

[결혼·신앙·공동체 활동하는 사람이 더 행복 느낀다](#)

조선일보\_2023.04.25.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역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